

전문번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Fondemen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Technique

Christine Durieux | 박시현 · 이향 옮김

번역(翻譯·翻譯) [버역] (國語) 한 나라의 말로 표현된 문장의 내용을 다른 나라 말로 옮김. 트랜슬레이션(translation), 譯자.

번역-가(翻譯家) [버역가] 國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번역-권(翻譯權) [버역권] 國 저작권의 일종. 어떤 저작물을 외국어로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번역-극(翻譯劇) [버역극] 國 (연) 외국의 희곡을 번역하여 상연하는 극.

번역 기계(翻譯機械) [버역기- / 버역기계] 國 번역을 하는 기계(전자 계산기가 그 주체를 이룸), 자동 번역기.

번역 문학(翻譯文學) [버역-] 國 외국의 문학 작품을 제 나라 말로 옮겨 따로 독특한 예술미가 있도록 한 문학.

번역-물(翻譯物) [버역-] 國 번역한 문서·작품.

번역-시(翻譯詩) [버역시] 國 번역한 시. 주로 서양의 시를 번역한 것.

translator [trāslatɛ] [(du lat. *translatum* <*transferre* (=transcrire))] *v.t.* (古) 번역하다.

traducteur [trāslatœ:r] [(lat. *translator* (=qui transporte ailleurs))] *n.m.* ① [電信·電話] 중계기(中繼器). ② (古) 번역자.

고려대학교 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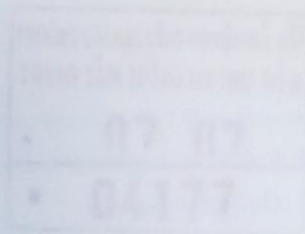
translátor, óris, m. [tránsfero] 1. 운반하

전문번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전문번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Christine Dufour | 한국어 교재 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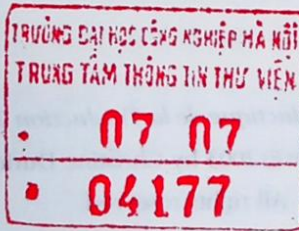
Fondemen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Technique



전문번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Christine Durieux | 박시현 · 이항 옮김

Fondemen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Technique



인간적 소통의 기술이행문헌

Christine Durieux (1941 - 2003)

Fondemen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Technique

Fondemen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Technique

Copyright © 2003 by Christine Durieux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03 by Korea University Press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Les Belles Lettres through IKA

한국어판 저작권은 Imprima Korea Agency를 통하여 Les Belles Lettres와의 독점계약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주권의 글

ESIT를 다녀간,
다니고 있는,
다니게 될
모든 학생에게

“말하듯 듣는” 기술에 관련하여 출판되는 글들은 필자가 이 자리에서의
학문에 대한 나의 고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말하듯 듣는” 것을 지혜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지
혜는 교육과정에서 이미 행하는 것이지만, 이 지혜를 얻기 때
문이다. 다른 지혜는 교육과정 밖에서 언어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C. D. Johnson은 전통적인 수업을 대체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혜는 주된 전문가의 성격과 성격에 관
한 깊은 이해와 관련한다. 이미 행하는 것을 단계별로 구분한 후, 언어가
언어학에서 학습 가능한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실제 다양한 교육분야에
사실적으로 이 교육분야의 학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기존의 언어학을
언어학을 넘어 넘어. 지혜는 전문언어학을 위한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도의 학습자로 여기는 모든 학생들을 영감하고, 세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혜가 행하는 언어교육은 특정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다. 이미 언어는 우리의 삶과 언어를 행하는 것, 언어적으로도 행하는

추천의 글

‘번역학 총서’ 가운데 한권으로 출판되는 본서는 현재까지 거의 개척되지 못한 분야인 번역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번역교육’이라는 명칭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학의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이미 번역은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어 교육상의 번역은 언어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반면, C. Durieux는 전문번역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우선 전문적 텍스트의 성격과 정의에 관해 심도 깊게 고찰한다. 이어 번역행위를 단계별로 구분한 후 번역사 양성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실제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전문번역사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기존의 언어학습 방법론을 뛰어 넘어, 저자는 전문번역사들을 위한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에게 제기될 만한 모든 문제들을 명료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번역교수법은 특정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언어 중 하나의 예로 영어를 택하였을 뿐, 궁극적으로는 원문의

저자가 텍스트를 통하여 표현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재 표현해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의미’라는 개념은 지난 20년간 번역학 연구가 낳은 소산물로 어의(語義, *signification linguistique*)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단어 차원에서의 대응어가 텍스트 차원에서는 더 이상 대응어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졌다. Durieux의 연구가 가지는 가치는 번역사의 업무가 두 텍스트간의 의미의 등가를 달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데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전문 텍스트의 번역도 이러한 점에서는, 문학텍스트나 일반 텍스트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데 있다.

J. Delisle이 수행한 연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본서는, 모든 것이 전문화되어 가는 오늘날, 전문번역을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D. SELESKOVITCH

저자 서문

본 연구는 전문적인 텍스트의 번역, 즉 전문번역의 개념과 번역이 수행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본 연구는 순수한 지적 탐구를 목적으로 했다가보다는 번역교육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을 도출해내겠다는 실리적인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본 고찰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보다는 Seleskovitch와 Lederer 교수가 주창하고 이어서 J. Delisle 교수가 발전시킨 의미이론 (*Théorie du sens*)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의미이론이 전문적 주제들을 다루는 텍스트의 번역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내고자 하였다.

필자가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처음으로 번역을 가르치게 되면서부터였다. 만일 7년 전 ESIT¹⁾에서 교편을 잡지 않았다면, 필자는 여러 차례의 실무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적으로 터득한 방법론을 거의 반사적으로 적용해가면서 일하는 선에서 만족했을 것이다. 필자는 실제 경험을 통하여, 이중언어 사전이나 다중언어 사전을 경계하여야 함을 배웠고, 백과사전 이용방법과 자료조사 방법도 터득하게 되었다. 실제 번역

1) 역주 : Ecole Supérieur d'Interprètes et de Traducteurs, 파리통역번역대학원

과정에서 봉착한 문제와 필요성들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결해가면서 번역방법도 점차 보완하게 되었다. 그러나 번역사로만 일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방법론을 스스로에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그저 경험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전, ESIT에서 영불 전문번역 강의를 맡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필자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 필자에게는 그 강의를 끝어나갈 능력이 없었다. 고객들의 평가를 토대로 볼 때, 나는 비교적 만족스럽게 직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으므로, 내 직업에 대해 스스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필자의 노하우를 어떻게 전수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번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문번역사를 교사로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전문번역사들은 교육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일이 없다. 처음 강단에 서게 되는 젊은 역사 교수나 지리학 교수는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교사는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지식을 전수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는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번역강의에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갑자기 교편을 잡게 된 전문번역사는 자신의 수업을 말 그대로 무(無)에서부터 창출해 내야 하며, 이러한 일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문적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를 마음대로 골라서, 학생들에게 번역하라고 시킨 다음, 모범답안을 나누어주면 되는가? 여기서 모범답안이란 물론 교사 스스로가 그 텍스트를 번역했다면 제시했을 번역문일 것이다. 교사가 그 번역을 어떤 과정을 통해 수행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교사의 문체와 개인적 선호도를 강요하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부정적이다.

어떻든 출발점이 필요했고, 필자는 실무경험을 출발점으로 삼기로 했다. 필자는 예비 번역사들에게 가르쳐줄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몰랐다. 게다가 나는 내가 맡게 될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학생들이 학사학위소지자들이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이는 구체적 단서가 될 수 없었다. 간단히 말해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나는 번역행위 자체에 대해 그리고 번역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번역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이 일을 매 순간 임시방편에 따라 일관성도 방향도 없이 되는 대로 수행하고 싶지는 않았던 만큼 필자의 의욕은 더욱 컸다.

ESIT의 박사과정에 개설된 세미나 강의는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이론적 틀로 구체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의미이론을 접하게 되었을 때 나는 과거에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명료하게 표현해 낸 것에 다름 아닌 이 이론이 편안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내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곧바로 깨닫게 된 것은 번역수업이 과제물을 부과하고 이를 교사가 수정해 주는 식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특정한 답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예비번역사들이 수없이 다양한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발견적(heuristic) 원칙들과 진정한 방법론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번역교육의 소재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우선 내가 전문번역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리해 내고 이를 단계별로 구분한 다음, 기본 원칙들을 파악해 내기로 했다. 번역의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A를 A'로 옮겨내는 작업이 거의 직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도 번역사로 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다행히 고객들은 최종 번역물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내가 A에서 A'로 어떻게 옮겨가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방법을 택하였는지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번역을 수행하면서 어려움

번역학총서 11

전문번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Fondemen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Technique

초판인쇄 | 2003년 2월 20일
초판발행 | 2003년 2월 25일

지은이 | Christine Durieux
옮긴이 | 박시현 · 이향
펴낸곳 | 고려대학교 출판부
출판등록 | 1962년 1월 17일 제 6-19호
찍은곳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산 1-61
전화번호 | 3290-4230~2
팩스 | 923-6311

값 9,000원

ISBN | 89-7641-470-5
89-7641-417-9(세트)
http | www.korea.ac.kr/~kupress
E-mail | kupress@korea.ac.kr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꿔드립니다.

전문적 텍스트의 번역은 그 내용상의 전문성 때문만이 아니라, 사용되는 어휘와 문법적 상적 언어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 때문에, 그러한 텍스트에 맞는 고유한 문법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단순한 상용(商用) 문서에 작은 글자로 쓰여진 지시문들이다, 보험계약서들만 보더라도 매우 특수한 개념들이 담겨 있고 특수한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더욱 번역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차원에서의 어려움은 단순히 계약서나 법률문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翻

번역【翻譯·翻譯】[버녁] ㉠(하타) 한 나라의 말로 표현된 문장의 내용을 다른 나라 말로 옮김, 트랜슬레이션(translation). ㉡ ~자.

번역-가【翻譯家】[버녁까] ㉠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번역-권【翻譯權】[버녁깐] ㉠ 저작권의 일종, 어떤 저작물을 외국어로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번역-극【翻譯劇】[버녁극] ㉠ (연) 외국의 희곡을 번역하여 상연하는 극.

번역 기계【翻譯機械】[버녁끼- / 버녁끼게] ㉠ 번역을 하는 기계(전자 계산기가 그 주체를 이룸), 자동 번역기.

번역 문학【翻譯文學】[버녁-] ㉠ 외국의 문학 작품을 제 나라 말로 옮겨 따로 독특한 예술미가 있도록 한 문학.

번역-물【翻譯物】[버녁-] ㉠ 번역한 문서·작품.

번역-시【翻譯詩】[버녁씨] ㉠ 번역한 시, 주로 서양의 시를 번역한 것.

ranslater [trāslate] [(du lat. translatum <transfere (=transcribere))] v.t. (古) 번역하다.

ranslateur [trāslatœ:r] [(lat. translator (=qui transportat ailleurs))] n.m. ①【電話·電話】중계기(中繼器). ② (古) 번역자.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Ệ
TRUNG TÂM THÔNG TIN TH



Mã sách: 070704177



9 788976 414700
ISBN 89-7641-470-5
ISBN 89-7641-417-9(세트)